

# 사회 신뢰와 갈등 인식이 뉴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 : 지상파, 종합편성, 온라인채널을 중심으로

## The Effect of Social Trust and Conflict Perception on News Use

김형지\*, 김영임\*\*, 허은\*\*\*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콘텐츠스쿨\*\*\*

Hyoung-Jee Kim(hjeekim.onto@gmail.com)\*, Young Yim Kim(yykim4591@gmail.com)\*\*,  
Eun Huh(huheun@ck.ac.kr)\*\*\*

### 요약

본 연구는 뉴스 이용자의 사회 신뢰와 갈등 인식이 뉴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거주 20세 이상 69세 이하 성인 548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정치성향에 따라 사회 갈등의 인식 수준에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사회 신뢰 인식이 높을수록 지상파채널, 종합편성채널, 온라인채널의 뉴스 이용이 증가하였다. 셋째, 사회 갈등 인식은 JTBC와 TV조선, 채널A, 유튜브를 통한 뉴스이용에 영향을 미쳤다. 넷째, 응답자의 연령대와 정치성향도 채널별 뉴스이용에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진보적 성향일수록 JTBC를 통한 뉴스 이용이나 포털에서 뉴스 다시보기가 증가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진보적 성향일수록 지상파3사와 TV조선, 채널A를 통한 뉴스 이용은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다채널 다매체 시대 뉴스환경에 대한 논의를 이용자 중심에서 살펴보고, 개인의 사회 인식이 뉴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를 발견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중심어 : | 뉴스 채널 | 이용자 | 사회 신뢰 | 사회 갈등 |

###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impact of social trust and conflict perception of news users on news use. To this end, 548 adults aged 20 and under 69 were surveyed online.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evel of awareness of social conflict has been shown according to people's political orientation. Second, the higher the trust in society, the greater the use of news regardless of land-based, comprehensive, and online channels. Third, the perception of social conflict was related to the use of news through JTBC, TV Chosun, Channel A and YouTube. Fourth, the age and political orientation of news users influenced the use of news by channel. Finally, the more progressive the tendency was to use news through JTBC or to watch news on portals. On the other hand, the more progressive the use of news through three terrestrial broadcasters, TV Chosun, and Channel A decreased. In conclusion,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erms of the user-oriented discussion of the news environment and the impact of an individual's social perception on news use.

■ keyword : | News Channel | User | Social Trust | Social Conflict |

\* 이 논문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B8070398).

접수일자 : 2019년 01월 08일

수정일자 : 2019년 03월 19일

심사완료일 : 2019년 03월 31일

교신저자 : 허은, e-mail : huheun@ck.ac.kr

## I. 서론

다매체 다채널 뉴스 환경은 누가 어떤 채널을 왜 선택하는지에 관한 뉴스 이용자 연구의 범위를 확장시켰다. 고선택 뉴스 환경에서 뉴스 채널의 이용과 선호, 내용평가, 뉴스의 공유와 확산, 참여에 이르기까지 연구주제가 다양해졌고, 뉴스 이용 행태와 수용자의 속성 변화에 대한 논의도 매체별, 채널별로 다르게 이루어졌다[1]. 특히 사람들이 뉴스를 선택하고 이용하는 이유와 방식을 개인의 경험 세계에서 형성된 사회 심리적인 정서와 인식의 차이로 접근하는 특징도 보였다[2].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개인적인 관심사와 흥미, 시대의식이냐 가치관에 부합하고 이를 강화할 목적에서 정보를 선택하는데, 이는 인간이 자신의 정서나 감정, 인지 상태와 다른 정보에 노출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인지부조화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제해 논의되었다[3].

이러한 관점에서 뉴스 수용자에 대한 정치이념 성향과 뉴스이용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는 적지 않았다[4-8]. 사람들의 정치이념 성향이 뉴스 정보에 대한 노출과 지각, 기억에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전제에서 뉴스 이용자의 정치이념 성향을 진보와 보수로 나누고 이것을 연령차로 설명하였다[9]. 고연령층일수록 보수적이고, 보수적인 뉴스 채널을 선호했으며, 저연령층일수록 진보적이고, 진보적인 뉴스 채널을 선호했다. 이러한 경향성은 전통적인 뉴스 채널에만 국한되지 않았고 트위터 등 온라인 및 소셜미디어 뉴스 서비스(예. newsfeeds) 이용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10].

한편,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 뉴스 전문채널에 이어 2011년 종합편성채널이 허가되면서 뉴스 채널의 증가가 내용의 다양성을 견인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많았다. 다매체 다채널 방송시장의 경쟁 구도는 뉴스에 대한 새로운 이미지 형성의 계기가 되었고, 전통성과 안정성이라는 종래 TV 뉴스의 이미지는 자유롭고 진취적인 이미지로 바뀌었다[11][12]. 대표적으로 종합편성채널 JTBC는 사회 정치적 격변 시기에 대립과 갈등 요소를 부각하고 논쟁적 이슈를 강조하는 전략으로 초기 보수 언론의 이미지를 탈피하기도 했다[13]. 아울러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 기능을 강화했고, 기존 채널에 뉴미디어 기술을 접목해 뉴스 이용자를 지속해서 유인

해왔다[14][15].

이에 본 연구는 다매체 다채널의 뉴스 환경에서 사람들의 뉴스 선택 행동의 영향요인을 개인의 사회 심리적 인식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의 사회 정치적인 경험에 대한 심리적 인식이 다양한 매체와 채널의 선택에서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탐색하고, 이들 인식이 뉴스 이용자의 연령대와 정치이념 성향과는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즉, 사람들의 사회 심리적 인식과 개인의 속성 차이를 찾고, 고선택의 뉴스 환경에서 누가 어떤 뉴스를 이용하는지에 주목하면서 뉴스 채널별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 II. 기존 문헌 검토와 연구문제

### 1. 뉴스 이용자의 구분

한국 갤럽의 뉴스 채널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초 약 1% 안팎이었던 JTBC의 시청자 선호도는 그해 하반기부터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였고, 3년 후인 2016년 조사에서는 채널 선호도가 약 35%를 기록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가결 때에 JTBC의 채널 선호도는 약 45%에 육박하기도 했다. 당시 시청자 선호도 2위를 기록했던 KBS(18%)보다 약 2.5배 정도 높은 수치였다. 한편 당시 KBS 뉴스에 대한 시청자 선호도는 3년 사이 약 41%부터 18%까지 하락 추세를 보였다.

뉴스 채널에 대한 시청자 선호도는 연령에 따른 차이를 보였는데, 같은 조사에서 20, 30대와 40대의 상당수가 JTBC를 가장 많이 즐겨본다고 응답했다. 50대 시청자도 JTBC 뉴스를 선호한다고 응답했지만(약 28%), 이들의 약 22% 정도는 KBS 뉴스도 선호했다. KBS 뉴스 선호는 6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정치적 이념성향에서 JTBC 뉴스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시청자가 스스로 진보라고 답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KBS 뉴스를 선호하는 시청자는 자신을 보수라고 인식하는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과 정치성향, 그리고 뉴스 이용 및 선호의 관련성은 우리 사회의 세대 구분을 위한 기준이

1 갤럽리포트(<http://www.gallup.co.kr>) 내용을 참조하였음.

되기도 했다.

그중에서도 연령은 뉴스 이용을 결정하는 가장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뉴스 이용량에 대한 연령효과(age effect)가 일관된 경향성을 보여왔다[16-20]. 지난 2002년부터 2014년 동안 연령별로 신문열독의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20, 30대는 80% 이상 열독량이 줄었고, 40대는 60% 이상, 50대는 40% 이상이 줄었다. 60대 초반은 50% 정도 신문열독량이 줄었지만, 60대 후반은 오히려 10% 정도 증가하기도 했다[18].

종이신문을 통한 뉴스이용은 젊은 연령층은 지속해서 줄었지만, 연령이 높을수록 뉴스 이용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뉴스 이용량 자체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신문 등 뉴스 이용의 주 연령층이 30대-50대 중장년층이라는 점과 고연령층이 사회활동을 통한 정보나 이슈 수용과 공유에 상대적으로 더욱 민감(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news use)할 수 있다는 이유로 설명되기도 했다[17][20].

한편, 기술수용의 관점에서 온라인과 소셜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은 뉴스 정보의 공유와 참여 등의 상호작용성 인식 정도가 주요한 영향 변인이었다[21]. 기술수용에 대한 용이성도 뉴스 이용에 영향을 미쳐서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에서 적극적인 온라인매체의 뉴스 이용 패턴을 보였다[22]. 우리나라는 특히 전통 매체보다는 인터넷을 통한 뉴스 이용에 대한 의존이 높고, 이러한 경향성은 젊은층에서 두드러진다. 기술의 활용과 젊은층의 뉴스 이용 간의 상관성은 방송사가 온라인 홈페이지 서비스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카카오톡 계정을 전략적으로 운영하는 결과로 이어졌다[23][24].

이는 사회 심리적인 구조와 미디어 기술의 발전이 뉴스의 합리적 소비를 촉진한다는 주장(Reasoned Action Model)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뉴스이용의 과정에서 보이는 이용자의 속성에 주목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20]. 다만, 연령효과와 뉴스 이용이 사회 정치적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없고,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에 관한 논의가 연령차이에 국한되는 것에 주의가 필요하다[25][26].

## 2. 사회 신뢰

신뢰란 신뢰의 대상이 주어진 일을 잘 해낼 것이라는 기대감, 또는 잘 할 것이라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27]. 신뢰는 신뢰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인데, 신뢰 수준은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정도로 이해될 수 있다. 개인이 신뢰 대상에 대한 기대나 믿음이 커질수록 자신의 이해관계를 해치거나 자신이 불리하다라도 신뢰 대상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의지가 생겨나고 강해지기도 한다[28].

신뢰 대상의 범위는 정부와 중앙권력, 사회 대표집단, 대기업, 언론, 주변인 등으로 포괄적이다. 일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정권에 대한 신뢰로서, 정부 정책에 대한 성과나 평가가 개인의 정부 신뢰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개인이 정권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신뢰는 높아지고, 개인의 정치성향과 정권의 정치성향이 일치할수록 신뢰도 높아질 수 있다[29]. 또 사회에 대한 이해가 높을수록 개인이 사회를 신뢰하는 수준은 증가하는데, 개인이 사회적 관계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의 크기나 강도가 신뢰를 인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한다[28][30].

신뢰와 미디어 이용의 관계에서, 개인은 형성된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선택적으로 뉴스를 이용한다. 선택적 미디어 노출을 통해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사회 법과 제도, 규제 및 정치 문화에 관한 정보를 수용하고, 기존 신념을 강화한다. 온라인에서 능동적으로 해당 이슈를 선택적으로 수용하고, 자신과 연결된 관계와 관련 대화를 공유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신뢰를 키워가기도 한다[31].

인터넷 기술의 발전은 사회자본으로서 신뢰를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사람들은 미디어를 통해 더 쉬운 방식으로 사회의 정보를 습득하며 사회변화와 문제해결 과정을 확인하게 된다. 개인이 사회관계 속에서 획득할 수 있는 자원의 양과 범위, 네트워크가 얼마나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가를 미디어를 선택적으로 노출하면서 평가해왔다[32].

정치권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기존 언론에 대한 신뢰가 낮을수록 온라인상에서 뉴스 정보의 댓글 읽기와 댓글 쓰기 행동은 증가하였는데[15], 사회에 대한 불신이 온라인 이용뿐 아니라 신문과 방송의 뉴스이용까

지 늘리는 상호적 효과 관계도 확인되었다[33]. 그러나 신뢰의 속성과 유형이 달라지면 온라인에서 정보를 수용하거나 공유하는 행동의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서 신뢰와 미디어 이용의 영향 관계가 일관된 방향이라고 결론짓기에는 한계가 있다[15].

결국, 사회 신뢰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 안에서 신뢰 대상에 대한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경험과 평가에 기반을 두는 것으로[29], 개인이 인지하는 정치와 사회, 제도, 경제 상황뿐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나 변화 등도 신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특정 행동, 즉 미디어를 선택적으로 노출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개인의 신뢰가 바탕이 된 자기 선택의 인과관계가 작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34].

### 3. 사회 갈등

갈등이란, 우리 사회의 조직과 집단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의 대립이나 충돌로, 언론은 이러한 사회 갈등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왔다[35]. 우리 사회가 이념과 지역, 세대, 노사 등의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면서 언론은 그 갈등이 어떤 것인지 프레임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개인은 언론이 보도하는 뉴스를 통해 갈등을 인지하면서 그 결과로써 언론을 평가하고, 언론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도 했다. 사회 갈등과 뉴스에 관한 연구가 갈등적 이슈에 대해 언론이 어떠한 논조와 프레임, 보도방식 등을 보이는지 매체별, 채널별 비교를 중심으로 선행된 이유이기도 하다.

뉴스 채널의 수적 증가로 뉴스의 내용이 달라지고 다양해지면서 지상파채널과 뉴스전문채널, 또는 종합편성채널간 비교연구가 활발했다. 그중에서 보수 신문사를 모태로 한 종합편성채널이 기존의 지상파나 뉴스채널과 어떻게 다른지를 다양성의 차원에서 강조해왔고, 대부분의 종합편성채널 출범 초기에 이루어진 연구에서는 뉴스 채널 공급의 다양성이 내용의 다양성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우려도 있었다[36].

그러나 점차 종합편성채널의 뉴스는 이용자의 선택을 고려하게 되었다. 뉴스채널로서 기존의 전통적인 방송의 이미지를 깨고, 채널마다 각자 새로운 방식의 갈등프레임을 추구하였다. 예를 들면, 2013년 철도노조 파

업에 대한 보도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간 논조차가 있었다. 지상파채널(KBS, MBC, SBS)은 파업 자체의 폭력성이나 불법성을 강조하면서 코레일 측과 정부 견해를 대변했던 반면, 종합편성채널 중에서 JTBC는 노조 측의 입장을 강조했다[37]. JTBC가 기존 채널과 논조 차이를 뚜렷하게 보인 것은 2014년 세월호 사건 관련 보도였다[38-41]. JTBC는 세월호 사건을 양적, 질적으로 비중 있게 다루었고 피해 관련자 중심의 정보원을 통해 사건 현황과 원인 등을 심층 보도했다. 세월호 사고 원인과 책임소재에 집중하면서 지상파채널에 비해 피해자 중심의 여론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 이러한 JTBC의 보도전략은 지상파채널의 뉴스가 갈등 이슈에 대해 구성했던 기존의 프레임과는 차별된 것으로 시정론을 견인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보도와 관련해서는 지상파 채널이 보도 논조에서 친정부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관련 기사의 아이템 수와 방송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에 비해 JTBC는 뉴스 방송 시간을 늘리고, 보도방식에서는 스트레이트뿐 아니라 전문가 대담형식 등 새로운 포맷을 시도하면서 사회 갈등 현안에 대한 뉴스 전문성과 흥미까지도 향상되었다[42]. 이 같은 갈등 프레임의 전략적 강화와 심층 보도는 종합편성채널이 지상파방송보다 편성에 대한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43].

결국, 뉴스 채널의 사회 갈등에 대한 보도관점과 방식의 차이가 고선택의 뉴스환경에서 사람들이 채널을 선택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한 것이다. 언론보도는 기본적으로 진보와 보수라는 정파성에 따라 우리 사회의 갈등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다. 무엇보다 갈등 이슈에 대한 채널별 프레임 차이가 있었으며, 뉴스 이용자 개인이 지닌 갈등에 대한 인식과 뉴스채널의 프레임이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에 따라 뉴스 채널은 선택되었다[44].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고선택의 뉴스이용 환경과 이용자 개인의 선택을 사회 심리적 경험을 토대로 한 사회 신뢰와 갈등 인식의 영향력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사회 신뢰와 갈등 인식을 뉴스 이용자의 개인 속성인 연령과 정치성향의 차이

로 설명하고자 한다. 그다음, 다채널 다매체의 뉴스환경에서 사람들의 사회 신뢰와 갈등 인식이 뉴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연령과 정치성향에 따라 사회 신뢰와 갈등 인식에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사회 신뢰와 갈등 인식이 뉴스 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및 수집방법

본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20대 이상 69세 이하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조사는 지난 2018년 3월 약 3주간 전문 업체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하였으며, 설문 응답자는 총 560명이었다. 연구의 분석은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548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인구 사회적 속성은 다음과 같다. 전체 548명 중에서 남성은 279명이었고, 여성은 269명이다. 평균 연령은 43.76세였으며, 연령대별로 구분해보면 20대는 112명(20.4%), 30대는 104명(19.0%), 40대는 123명(22.4%), 50대는 122(22.3%), 60대는 87명(15.9%)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72.8%가 대학교 이상 졸업자였고, 월 평균 소득이 200만 원-600만 원이었던 응답자는 전체의 65.4%를 차지했다.

#### 2. 변인의 측정

##### 2.1 뉴스 이용

본 연구에서는 뉴스 이용은 '나는 (TV와 인터넷)을 통해 뉴스를 시청/이용한다'(M=3.05, SD=.94)로 질문하였으며, 채널별로 이용정도를 각각 질문하였다. 예를 들면, '나는 KBS를 통해 뉴스를 시청한다' 또는 '나는 유튜브를 통해 뉴스를 이용한다' 등으로 질문하였다. 이에 대해 응답자는 동의하는 정도를 각각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이용하지 않는다'부터 5='자주 이용한다')로 답하였다. 뉴스채널은 3개의 지상파채널(KBS, MBC,

SBS)과 4개의 종합편성채널(JTBC, MBN, TV조선, 채널A), 그리고 온라인 채널(포털다시보기, 유튜브, 카카오톡)로 구분하였다.

표 1. 뉴스 이용 평균과 표준편차

		평균 (M)	표준편차 (SD)
지상파 채널	KBS	2.83	1.28
	MBC	2.50	1.25
	SBS	2.69	1.17
종합편성 채널	JTBC	3.24	1.32
	MBN	2.33	1.23
	TV조선	2.09	1.16
	채널A	2.28	1.21
온라인 채널	포털 다시보기	2.23	1.22
	유튜브	1.87	1.14
	카카오톡	1.74	1.04

주1. N=548

##### 2.2 정치성향

본 연구에서 사람들의 정치성향은 보수, 진보, 중도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정치성향에 대한 질문에서 '나는 보수적인 편이다', '진보적인 편이다', '어느 쪽도 아니다(중도)'로 답하였다. 응답자 중 보수성향은 121명, 진보성향은 145명, 중도는 282명으로 나타났으며, <연구문제 2>의 분석을 위해 정치성향은 진보(진보1, 비진보0)로 가변인 처리하여 사용하였다.

##### 2.3 사회 신뢰

사회 신뢰는 정부나 대표 권력기관, 대기업 및 언론의 업무 수행에 대한 개인의 기대감이나 믿음으로 [27-29], 구체적인 측정문항은 '나는 정부를 신뢰한다(M=2.66, SD=.98)', '나는 국회를 신뢰한다(M=1.93, SD=.94)', '나는 언론을 신뢰한다(M=2.25, SD=.96)', '나는 시민단체를 신뢰한다(M=2.48, SD=.99)', '나는 대기업을 신뢰한다(M=2.22, SD=.98)'로 총 5개로 구성하였다. 응답자는 각 문항에 동의의 정도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로 답하였다(M=2.31, SD=1.28, Cronbach's  $\alpha$  = .80).

##### 2.4 사회 갈등

사회 갈등은 사회변화를 일으키면서 이해당사자 간 대립과 충돌, 긴장이 첨예한 상황에 대한 인식으로 정

의하였다[35][44].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는 빈부 갈등이 있다( $M=4.29, SD=.81$ )’, ‘우리 사회는 정규직비정규직 갈등이 있다( $M=4.17, SD=.86$ )’, ‘우리 사회는 노사 갈등이 있다( $M=3.95, SD=.84$ )’, ‘우리 사회는 세대 갈등이 있다( $M=3.88, SD=.87$ )’, ‘우리 사회는 이념 갈등이 있다( $M=3.83, SD=.96$ )’, ‘우리 사회는 지역 갈등이 있다( $M=3.53, SD=.95$ )’로 총 6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에 응답자는 동의 정도에 따라 5점 리커트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매우 그렇다’)로 답하였다( $M=3.94, SD=.61, Cronbach's \alpha=.79$ ).

#### IV. 연구결과

##### 1. 연령과 정치성향에 따른 사회 신뢰 및 갈등의 인식차

<연구문제 1>에서 뉴스 이용자의 연령과 정치성향에 따른 사회 신뢰와 갈등 인식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뉴스 이용자의 사회 신뢰 정도는 20대가 평균 2.27로 나타났고, 30대가 평균 2.16, 40대가 평균 2.36, 50대가 평균 2.33, 60대가 평균 2.42로 나타났다. 30대가 수치상으로 가장 낮았고, 60대가 가장 높았다. 그러나 연령대별 사회 신뢰에 대한 인식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고( $p=n.s$ ), 우리 사회 전 연령대에서 사회 신뢰 수준이 평균적으로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 역시 통계적인 연령 차이는 없었지만( $p=n.s$ ), 30대가 우리 사회의 갈등을 인식하는 정도의 수치가 높았고( $M=4.09, SD=.58$ ), 20대와 40대 이상의 고연령층 역시 우리 사회의 갈등이 존재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2. 연령에 따른 사회 신뢰 및 갈등 인식차 분석결과

		사회 신뢰	사회 갈등
연령	20대	2.27(.76)	3.85(.63)
	30대	2.16(.74)	4.09(.58)
	40대	2.36(.64)	3.93(.56)
	50대	2.33(.70)	3.92(.60)
	60대	2.42(.75)	3.92(.66)
<i>F, df, adj.R<sup>2</sup></i>		1.84, 4, .01	2.34, 4, .01

주1. N=548  
\* $p < .05$ , \*\* $p < .01$ , \*\*\* $p < .001$

다음으로 정치이념에 따라 사회 신뢰와 갈등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보수와 진보, 중도로 구분한 뉴스 이용자의 정치성향별 사회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정치성향에 따른 사회 신뢰에 대한 인식 수준은 차이가 통계적 없었지만( $p=n.s$ ), 사회 갈등의 인식 수준은 대체로 정치성향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F=3.59, p<.01$ ).

표 3. 정치성향에 따른 사회 신뢰와 갈등의 인식차 분석결과

		사회 신뢰	사회 갈등
정치성향	보수	2.19(.65)	3.91(.63)
	진보	2.38(.74)	<b>4.06(.61)*</b>
	중도	2.32(.74)	<b>3.89(.59)*</b>
<i>F, df, adj.R<sup>2</sup></i>		2.59, 2, .01	3.59**, 2, .03

주1. N=548  
\* $p < .05$ , \*\* $p < .01$ , \*\*\* $p < .001$

진보성향의 사회 갈등 인식 수준이 평균 4.06으로 가장 높았으며, 보수성향은 평균 3.91, 중도성향은 평균 3.89이었다. 진보와 보수, 중도성향 모두 우리 사회의 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대체로 높은 편이었다. 집단간 차이를 검증한 결과(Scheffe 검정방법), 진보성향이 중도성향보다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더 높았다. 그러나 보수성향과 진보성향 간, 보수성향과 중도성향 간의 사회 갈등의 인식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 2. 채널별 뉴스 이용 분석

<연구문제 2>에서 사람들의 사회 신뢰와 갈등 인식이 뉴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사회 신뢰와 갈등 인식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이용정도를 종속변인으로 하는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때 뉴스이용 변인은 지상파채널을 통한 뉴스 이용, 종합편성채널을 통한 뉴스 이용, 온라인채널을 통한 뉴스 이용 정도를 각각 종속변인에 투입하였다. 또한, 연령과 정치성향(진보적)은 통제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4]와 같다.

먼저 지상파채널의 뉴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자의 사회 인식을 살펴보았다. KBS, MBC, SBS 채널의 뉴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식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이용자의 사회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표 4. 뉴스 채널별 이용의 영향 변인 분석결과

	KBS		MBC		SBS		JTBC		MBN		TV조선		채널A		포털뉴스 다시보기		유튜브		카카오톡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model 1	model 2												
연령	.25***	.23***	.17***	.15***	.15***	.13**	.02	.01	.15**	.13**	.24***	.21***	.20***	.18**	-.10*	-.12**	-.01	-.01	-.07	-.09*
진보적	-.18**	-.20**	-.18**	-.20**	-.08	-.10*	.22***	.19***	-.06	-.08	-.14**	-.17**	-.09*	-.11*	.11*	.09*	.03	.01	-.04	-.06
사회 신뢰		.22***		.21***		.23***		.09*		.12**		.23***		.21***		.17***		.18***		.21***
사회 갈등		.04		.04		-.01		.21***		.07		.09*		.09*		.08		.15**		.05
adj. R <sup>2</sup>	.07	.10	.07	.10	.03	.08	.05	.08	.02	.03	.08	.13	.05	.08	.02	.05	.03	.04	.01	.04
F	31.65***	24.64***	20.06***	16.73***	9.27***	12.47***	14.03***	13.56***	7.34**	5.76**	24.91***	21.22***	13.95***	13.43***	6.48**	7.23***	3.25	6.05***	2.55	6.34

주1. N=548  
\*p< .05, \*\*p< .01, \*\*\*p< .001

KBS를 통한 뉴스 이용이 증가하였고( $\beta=.22, t=5.45, p<.001$ ), MBC( $\beta=.21, t=5.00, p<.001$ )와 SBS( $\beta=.23, t=5.39, p<.001$ ) 역시 통계적으로 정의 영향을 받았다. 또한, 나이가 많을수록 KBS, MBC, SBS를 통한 뉴스이용이 증가하였으며( $p<.01$ ), 진보적일수록 KBS 및 MBC를 통한 뉴스이용은 감소하였다( $p<.05$ ). 하지만, SBS를 통한 뉴스이용은 진보적 정치성향과의 영향 관계가 음의 방향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p=n.s.$ ).

종합편성채널의 뉴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식은 지상파채널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였다. 우선, 뉴스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MBN을 제외하고 사회 신뢰와 사회 갈등 인식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JTBC( $\beta=.09, t=2.11, p<.05$ ), MBN( $\beta=.12, t=2.27, p<.01$ ), TV조선( $\beta=.23, t=5.60, p<.001$ ), 채널A( $\beta=.21, t=4.81, p<.001$ )를 통한 각각의 뉴스 이용이 증가했다. 또,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을수록 JTBC( $\beta=.21, t=4.90, p<.001$ ), TV조선( $\beta=.09, t=2.27, p<.05$ ), 채널A( $\beta=.09, t=2.21, p<.05$ )를 통한 뉴스 이용도 증가하였다.

한편, JTBC를 통한 뉴스 이용은 연령과 통계적 관련성이 없었지만( $p=n.s.$ ), MBN, TV조선, 채널A를 통한 뉴스 이용은 연령과 정적 영향관계였다( $p<.01$ ). 나이가 많을수록 JTBC를 제외한 종합편성채널의 뉴스 이용도 증가하였다. 또, 진보적 정치성향과 종합편성채널 간의 영향 관계도 흥미로운 결과를 확인하였다. 진보적 성향일수록 JTBC를 통한 뉴스 이용이 증가했지만( $p<.001$ ), TV조선과 채널A를 통한 뉴스 이용은 진보적 성향과

부적 영향 관계를 나타냈다( $p<.05$ ). 진보적일수록 해당 채널을 통한 뉴스 이용은 감소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 이외에도 MBN을 통한 뉴스 이용 정도는 진보적 정치성향과는 통계적 관련성이 없었다( $p=n.s.$ ).

마지막으로, 온라인채널의 뉴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인식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온라인채널 역시 뉴스 이용자의 사회 신뢰 수준과 정적 영향 관계를 보였다. 사회 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포털에서 뉴스 다시 보기는 증가하였으며( $\beta=.17, t=3.85, p<.001$ ), 유튜브( $\beta=.18, t=4.17, p<.001$ ) 및 카카오톡( $\beta=.21, t=4.71, p<.001$ )을 통한 뉴스 이용도 증가하였다.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은 사회 갈등 인식 수준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beta=.15, t=3.42, p<.01$ ). 다른 온라인채널을 통한 뉴스 이용은 사회 갈등 인식과 통계적 관련성이 없었다( $p=n.s.$ ). 이외도 나이가 적을수록, 진보적 성향일수록 포털에서 뉴스 다시 보기를 많이 하고( $p<.05$ ), 연령은 카카오톡을 통한 뉴스 이용과도 부적 영향 관계를 보였다( $p<.05$ ). 하지만, 유튜브를 통한 뉴스이용은 연령과 정치성향과는 통계적 관련성이 없었다( $p=n.s.$ ).

## V. 결론

본 연구는 다매체 다채널의 뉴스환경에서 이용자의 개인적 속성과 사회적 인식이 뉴스이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으로 뉴스를 제공하는 채널마

다 사회 신뢰와 갈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수준의 차이를 발견하였고, 이와 함께 뉴스 이용자의 연령과 정치적 성향의 차이가 뉴스 이용에 미치는 영향까지 확인하였다.

분석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들의 사회 갈등 인식 수준은 정치성향의 차이가 발견되었다. 진보적인 성향이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는 중도보다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았다. 둘째, 전반적으로 사회 신뢰와 뉴스 이용의 영향 관계가 확인되었다. 사회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지상파채널, 종합편성채널, 온라인채널과 관계없이 뉴스이용이 증가하였다. 셋째, 사회 갈등에 대한 인식은 JTBC와 TV조선, 채널A, 유튜브를 통한 뉴스 이용과 관련 있었다. 사회 갈등 인식이 높을수록 해당 채널의 이용이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지상파 3사 채널의 뉴스 이용은 사회 갈등 인식과 관련이 없었다. 넷째, 뉴스 이용자의 개인적 속성 차이가 채널별 뉴스 이용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주로 고연령일수록 지상파 3사 채널을 통한 뉴스 이용이 증가하였고, 종합편성채널 중에서 JTBC를 제외한 채널 3사 역시 고연령일수록 해당 채널을 통한 뉴스 이용이 증가했다. 하지만 저연령일수록 포털에서 뉴스 다시 보기와 카카오톡을 통한 뉴스 이용이 증가했다. 마지막으로, 진보적 성향일수록 JTBC를 통한 뉴스 이용이나 포털에서 뉴스 다시 보기를 하는 경향성이 발견되었다. 반면에 진보적 성향일수록 지상파 3사와 TV조선, 채널A를 통한 뉴스 이용은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크게는 방송채널의 뉴스와 온라인채널의 뉴스 이용자의 연령 및 정치성향의 차이, JTBC와 타 방송채널 간의 사회 갈등에 대한 관점 차이와 이용자 연령 및 정치성향의 차이, 온라인 뉴스채널로서 유튜브에 대한 이용자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잘 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은 사람들의 뉴스 이용을 증가시켰다. 다만, 우리 사회의 신뢰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뉴스 이용과 신뢰의 일반적인 영향 관계가 설명됨으로써, 개인의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믿음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정부나 권력기관에 대한 업무 수행능력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커질수록 뉴스이용도

상대적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며, 뉴스 이용의 증가로 사회에 대한 이해와 지식수준이 높아지면 사회 신뢰도가 선순환적으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28][29].

한편, 사람들이 정치·사회적 분쟁이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사회문제에 직면했을 때 어떤 방식의 정보를 수용하고자 하는지 알 수 있었다. 전통적으로 갈등 사안을 사건 중심의 프레임으로 다루고, 갈등을 이루는 대립 집단에 대한 논조가 친정부적이고 공권력의 입장을 견지하던 지상파채널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은 사회 갈등에 대한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이었다. 사회 갈등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국가의 신뢰기관인 정부와 대표기관에 묻지 않고, 사안마다 개별적으로 보도하는 지상파채널의 갈등 보도전략이 이용자의 사회 심리적인 인지와 뉴스 이용의 동기 욕구를 저해할 수도 있다[44].

이외에도 사회적 갈등 이슈에 대한 정보공유 및 네트워크 간의 상호작용은 과거 온라인 포털 사이트 댓글이나 블로그, 카페를 중심으로 활성화됐던 것이 사회적 인식에 따라서는 유튜브로 그 공론장의 기능이 이동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온라인이라는 소통공간이 여전히 뉴스 채널로서 사회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으며[45], 그중에서 유튜브는 기존의 온라인채널과는 차별적으로 연령이나 정치색을 띠지 않았다. 유튜브가 사회적 공론과 속의가 활성화되는 장으로 성장할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온라인뉴스 채널로서 포털 사이트와 카카오톡의 뉴스 소비가 저연령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전통적인 뉴스 채널로서 방송이 온라인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를 통한 이용자 확보 전략을 지속해야 할 필요도 여전히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한다[14][24].

본 연구는 지난 우리 사회의 정치적 격변기를 경험한 지금 세대의 성향(predisposition)에 따른 사회 인식을 파악하고, 그것이 개인의 뉴스 이용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 기존의 선행 뉴스 연구들이 공급자 중심에서 정파적 논리로 이용자의 속성을 파악하려 했다면[5][6][46], 본 연구는 개인의 인식과 뉴스 이용의 관련성을 찾고[15][24][47], 그 안에서 세대라고 구분되는 연령이나 정치성향의 관계까지 파악하고자

했다[25][26]. 더불어, 수적으로 증가한 뉴스 채널의 속성을 단순히 연령효과나 정파성에 따른 구분이 아닌 사회에 대한 시선과 그것을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로 이해하고자 했다. 무엇보다 다른 시각을 가진 개인이 사회변화와 안정, 정치적 갈등과 사회통합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어떤 뉴스 공급원을 찾아 어떤 정보를 사용하고 공유하길 원하는지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연령에 따른 사회적 세대 구분에 대한 논의를 차별화하는 결과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기존의 연령의 세대 구분은 40대를 기준으로 20, 30대 젊은 층과 50, 60대 장년층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었다. 40대는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면서 동시에 사회 갈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진보로 이동하는 추세를 보여 세대 개념에서 중요한 기준점이 되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연령 변인은 사회에 대한 신뢰나 갈등의 인식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매체의 기술적인 접근성의 한계로 뉴스이용의 차이를 보였지만, 방송이나 인터넷 채널 모두가 연령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또 정치이념에 따른 세대 구분 역시 뉴스 채널과 이용의 차원에서는 다양한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둘 필요가 있겠다. 뉴스 이용자는 보수와 진보가 사회를 인식하는 정도의 차이가 없었고,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한 차이로써 뉴스 채널을 달리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었다. 진보와 보수 모두 사회에 대한 신뢰를 저평가하고 있으며, 사회 갈등에 대한 심각성 인식은 높았다. 결국, 연령효과나 정파성으로 뉴스 채널과 뉴스 이용자를 구분했던 기존의 논의들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먼저 뉴스 이용 변인이 채널별로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는 점은 이용량과 빈도에 대한 측정의 타당도와 신뢰도에 오류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정치성향은 조사시기의 특성상 중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이용자의 정치 사회학적 속성의 결과는 일반화하기 힘들 수 있다. 그리고 본 연구는 뉴스 채널을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온라인채널로 구체화하였으나, 케이블TV 전문채널이나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다양한 온라인채널에 관한 결과를 모두 담지 못하였고, 채널의 구분 역

시 연구자의 작위적인 기준에 따랐다는 점은 방법에서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연령이나 정파성에 대한 논의를 넘어 뉴스 이용자의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인식구조를 이해하고자 했으며, 그 인식의 차이를 통해 뉴스 채널 선택 행위와 속성을 고찰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1] 김동윤, 김민하, 김사승, 김익현, 이동훈, *뉴스 이용자의 진화* 커뮤니케이션북스, 2010.
- [2] 금희조, “뉴미디어 환경이 개인의 사회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4호, pp.5-26, 2009.
- [3] L. Festinger, “Cognitive dissonance,” *Scientific American*, Vol.207, No.4, pp.93-106, 1962.
- [4] 민영, “선택적 뉴스 이용,” *한국언론학보*, 제60권, 제2호, pp.7-34, 2016.
- [5] 유수정, 이건호, “메인 뉴스 논조 차별화가 드러낸 한국 종편 저널리즘의 지형,” *한국언론학보*, 제61권, 제1호, pp.7-35, 2017.
- [6] 이승엽, 양기문, 이상우, “종합편성채널의 정치적 편향성 분석,” *한국방송학보*, 제31권, 제1호, pp.149-183, 2017.
- [7] R. Lance Holbert, Jay D. Hmielowski, and Brian E. Weeks, “Clarifying relationships between ideology and ideologically oriented cable TV news use: A case of suppression,” *Communication Research*, Vol.39, No.2, pp.194-216, 2012.
- [8] Su, Min-Hsin, Jiawei Liu, and Douglas M. McLeod, “Pathways to news sharing: Issue frame perceptions and the likelihood of shar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91, pp.201-210, 2019.
- [9] Stroud, Natalie Jomini, *Niche news: The politics of news choice*, Oxford University Press on Demand, 2011.

- [10] Diehl, Trevor, Matthew Barnidge, and Homero Gil de Zúñiga, "Multi-platform news use and political participation across age groups: toward a valid metric of platform diversity and its effects,"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1077699018783960, 2018.
- [11] 강명현, "지상파와 종편채널의 뉴스특성 비교연구," *언론과학연구*, 제16권, 제1호, pp.5-36, 2016.
- [12] 김정, 오세성, 진창현, "TV 뉴스 브랜드 이미지가 시청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9호, pp.510-522, 2017.
- [13] 조은영, 유세경, "종합편성 채널 도입과 방송 뉴스 보도의 다양성,"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3호, pp.433-461, 2014.
- [14] 황유선, "페이스북을 활용한 미디어 기업의 뉴스 콘텐츠 제공 전략과 소비자 반응," *경영학연구*, 제43권, 제6호, pp.2091-2115, 2014.
- [15] 나은경, 이강형, 김현석, "댓글 읽기/쓰기를 통한 온라인 소통이 대의민주주의 사회에서 갖는 의미: 인터넷 뉴스 댓글 이용과 사회신뢰, 정치신뢰, 언론신뢰, 그리고 정치지식,"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1호, pp.109-132, 2009.
- [16] 김수정, "누가 맞벌이를 주도하는가? 맞벌이의 이행에서 시기, 연령, 코호트 효과 분석," *한국여성학*, 제31권, 제4호, pp.147-180, 2015.
- [17] 김재영, 송인덕, "지역신문 독자연구: 이용 동기, 열독기사, 게재희망 기사를 중심으로," *사회과학연구*, 제25권, 제2호, pp.247-265, 2014.
- [18] 이강형, 남제일, "중이신문 열독시간 변화 추이: 연령, 코호트 및 시기 효과(2002년-2014년)," *한국언론정보학보*, 제83권, pp.130-156, 2017.
- [19] E. Lauf, "The vanishing young reader: Socio-demographic determinants of newspaper use as a source of political information in Europe, 1980-1933," *European Journal of Communication*, Vol.16 No.2, pp.233-243, 2001.
- [20] A. M. Lee and H. R. Chyi, "Motivational consumption model: Exploring the psychological structure of news use,"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91, No.4, pp.706-724, 2014.
- [21] C. S. Park and Barbara K. Kaye, "News engagement on social media and democratic citizenship: Direct and moderating roles of curatorial news use in political involvement," *Journalism & mass communication quarterly*, Vol.95, No.4, pp.1103-1127, 2018.
- [22] 이정기, 최믿음, 박성복, "대학생들의 신문 이용 동기와 기술수용모델 변인이 유료 모바일 뉴스 콘텐츠 수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 경제와 문화*, 제10권, 제3호, pp.129-172, 2012.
- [23] 이준용, 문태준, *포털 뉴스의 대두와 다중매체 뉴스이용* 한국방송학회 세미나 및 보고서, pp.1-63, 2007.
- [24] 신태범, 권상희, "국내 청소년의 포털뉴스 이용 특성과 뉴스신뢰, 공공성인식에 관한 연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제30권, 제1호, pp.241-294, 2013.
- [25] 박재홍, "한국사회의 세대갈등," *한국인구학*, 제33권, 제3호, pp.75-99, 2003.
- [26] 전상진, "세대 개념의 과잉, 세대연구의 빈곤," *한국사회학*, 제38권, 제5호, pp.31-52, 2004.
- [27] Patricia M. Doney, Joseph P. Cannon, and Michael R. Mullen, "Understanding the Influence of National Culture on the Development of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3, No.3, pp.601-620, 1998.
- [28] R. C. Mayer, J. H. Davis, and D. Schoorman, "An integrative model of organizational trus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Vol.20, pp.709-734, 1995.
- [29] 서정록, "국민인식을 기반으로 한 정부신뢰의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제30권, 제3호, pp.531-552, 2018.
- [30] 김상돈, "사회경제적 지위와 정치적 성향이 국가기관 불신에 미치는 영향: 정부정책 불신의 매개효과," *한국사회학*, 제43권, 제2호, pp.25-54, 2009.

[31] 김은미, 김반야, 서민향, “온라인에서 형성되는 사적신뢰와 사회신뢰의 관계,” 한국방송학보, 제28권, 제3호, pp.7-47, 2014.

[32] R. D. Putnam,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2000.

[33] 황용석, “인터넷 이용과 정치참여에 관한 탐색 연구: 제16대 총선 기간 동안 인터넷 정치사이트 이용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제45권, 제3호, pp.421-150, 2001.

[34] 박종민, 김왕식, “한국에서 사회신뢰의 생성: 시민사회와 국가제도의 역할,” 한국정치학보, 제40권, 제2호, pp.146-169, 2006.

[35] 이영희, “민주화와 사회 갈등: 공공정책을 둘러싼 사회갈등의 이해,” 동향과 전망, 제61호, pp.36-67, 2004.

[36] 박기목, 김광재, “방송시장의 경쟁구조와 뉴스 콘텐츠 품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4권, 제12호, pp.706-722, 2014.

[37] 조은영, 유세경, “종합편성 채널 도입과 방송 뉴스 보도의 다양성,” 한국언론학보, 제58권, 제3호, pp.433-461, 2014.

[38] 강준만, “손석희 현상: 44 개월간의 기록, 2013년 5월~ 2016년 12월,” 인물과 사상, 제226권, pp.41-81, 2017.

[39] 윤태진, “방송사의 세월호 참사 보도,” 문화과학, 제79권, pp.192-212, 2014.

[40] 최진봉, “방송 뉴스의 재난보도 콘텐츠에 대한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6권, 제12호, pp.539-550, 2016.

[41] 홍주현, 나은경, “세월호 사건 보도의 피해자 비난 경향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9권, 제6호, pp.69-106, 2015.

[42] 김병진, 이상은, 양중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보도 편향성에 관한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7권, 제11호, pp.554-566, 2017.

[43] 이승엽, 양기문, 이상우, “종합편성채널의 정치적 편향성 분석,” 한국방송학보, 제31권, 제1호,

pp.149-183, 2017.

[44] 전형준, “미디어 이용과 공공갈등 인식의 상관관계 분석,” 한국언론학보, 제54권, 제3호, pp.167-184, 2010.

[45] 이창호, 이호영, “포털 이용자들의 포털 뉴스이용패턴 및 포털의 언론역할에 관한 인식,” 한국언론정보학보, 통권 46권, pp.177-210, 2009.

[46] 임양준, “집단적 갈등 이슈에 대한 방송뉴스 프레임 비교연구,” 한국언론학보, 제53권, 제5호, pp.55-79, 2009.

[47] 금희조, 조재호, “미디어를 통한 뉴스 이용과 대화가 정치 지식, 효능감, 참여에 미치는 영향,” 한국언론학보, 제59권, 제3호, pp.452-481, 2015.

#### 저 자 소 개

김 형 지(Hyoung-Jee Kim)

정희원



- 2004년 2월 :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과(학사)
- 2006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과(석사)
- 2017년 8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과(박사)

• 2018년 11월 ~ 현재 : 서울대학교 언론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

<관심분야> : 수용자심리, 미디어중독, 데이터분석

김 영 임(Young Yim Kim)

정희원



- 1978년 2월 :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학사)
- 1983년 12월 : 미국 미시간 주립대학교 커뮤니케이션(석사)
- 1996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박사)

• 1985년 3월 ~ 현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미디어영상학과 교수

<관심분야> : 휴먼커뮤니케이션, 미디어효과, 스피치 커뮤니케이션

허 은(Eun Huh)

정회원



- 1987년 2월 : 고려대학교 사회학 (학사)
- 1996월 1월 : 미국 템플대학교 대학원 저널리즘(석사)
- 2007년 2월 : 고려대학교 대학원 언론학(박사)

▪ 1999년 3월 ~ 현재 : 청강문화산업대학교 게임콘텐츠스쿨 교수

<관심분야> : 대인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스토리텔링